

순천시, 전남 첫 쓰러질 위험 있는 가로수 사전 정비

자연재해·내부 부패 전도 사고 잇따라 선제 대응 차원 진단·관리 용역 금당지구 수목 968주 대상 위험성 평가... 조치 권고 41주 이달중 제거

순천시가 최근 가로수 전도 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 최초로 '가로수 위험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위험 수목에 대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풍,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노후하거나 내부 부패가 진행된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가로수의 체계적 진단과 관리를 위해 이번 용역을 실시했다.

가로수 위험성 평가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진행했으며, 노후 수목으로 피해 사례가 빈번했던 금당지구 일대를 2025년 정비 대상지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 식재된 느티나무 968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수목의 형상, 줄기 기울기, 뿌리부 결합 등을 확인하는 기초조사와 함께, TS Meter 전기저항 측정기, 내시경 촬영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조사도 병행해 진행했다.

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전도 위험이 높은 느티나무 41주가 '조치 권고 수목'으로 판정됐다.

시는 이들 수목에 대해 7월 중으로 제거 또는 외과수술 등의 정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금당지구 외 다른 지역으로 위험성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와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숲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우리고장 명소

곡성 영수정 일원 '전남도 자연유산'



조선시대 일곱 성씨 향약 실천 장소 150년 원형 보존... 향촌 사회 유산

곡성 영수정 일원(사진)이 전남도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된 이후 곡성군에서 자연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첫 번째 사례이다.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문화유산을 말한다.

곡성 영수정은 조선시대 곡성 일곱 성씨들의 향약 실천 장소로 1862년 건립돼 중수(1879년)·상량(1915년)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오곡면 순흥안씨 종중에서 관리되고 있다. 영수정은 민간 중심의 향촌 사회사 및 공동

체 조성과 운영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산이다.

영수정은 호남 정자건축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전통 누정건축 연구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넓은 평야와 강이 흐르는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내부에 걸린 여러 기문과 시문을 통하여 향촌 사회 문화적 공간의 일면을 알 수 있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처럼 영수정은 자연과 교감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한 공간이면서, 150여 년 동안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문화유산으로 금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여수 영락공원 화장장, 전남 도민도 이용 가능

조례 개정... 타 시·군·구 거주자도 조건부 이용

여수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사망자 증가로 인근 지역의 화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수시 화장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영락공원 화장장 '승화원'의 '관외자' 사용 자격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관외자'를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관외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

는 '사망 당시 전라남도에서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여수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내 거주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또 타 시·군·구 거주자도 여수시에서 사망한 경우 영락공원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15774129.go.kr)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여수시 영락공원(061-659-1795) 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여수시민뿐 아니라 도내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장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태국 요트 국가대표팀이 대한민국 대표팀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소호요트마리나에서 합동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태국 요트 국가대표팀, 여수서 합동 전훈

25일까지 소호요트마리나...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등 9개 팀도

태국 요트 국가대표팀이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소호요트마리나에서 대한민국 대표팀과 함께 합동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을 비롯해 충남 보령시청, 경북요트협회,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등 총 9개 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대표팀과의 합동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팀

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참가 팀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여수시는 온화한 기후, 훈련에 적합한 해양환경,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등을 바탕으로 이번 전지훈련지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과 태국 요트 국가대표팀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번 해외 요트팀 전지훈련 유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전지훈련을 계기로 해양 스포츠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향후 국내외 전지훈련 팀 유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실업팀과 학생팀 선수들이 국가대표팀들의 뛰어난 기량을 경험하면서, 실력을 한층 끌어올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수시가 명실상부한 해양 스포츠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녹동농협, 고흥 교육발전 기금 1천만원



녹동농협이 최근 (사)고흥군 교육발전 위원회에 교육발전 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녹동농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지역 농업 발전을 넘어 청소년 교육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박기탁 녹동농협 조합장은 "교육 이야말로 우리

리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값진 투자"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희망을 키우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탁금은 고흥지역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보성군 울어면희망드림협의회 취약층 40가구 오리훈제 보양식

보성군 울어면희망드림협의회가 지난 17일 '우리동네 북(復)날 영양 보충사업' "복(復) 받으세요"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40가구에 오리훈제 보양식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진 모금 활동을 통해 추진됐으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의 영양 보충과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오리훈제는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각 가정에 개별 포장된 상태로 제공되어 위생과 편의성까지 고려됐다.

전흥군 울어면희망드림협의회 위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맛있는 한 끼를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어면희망드림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 '배알도 섬 정원' 수국 명소로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사업' 목수국 200여 주 식재 등 단장

광양의 '낭만플랫폼' 배알도 섬 정원(사진)이 수국 명소로 변신한다.

광양시는 최근 배알도 섬 정원에 미디어아트를 구축하는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사업'의 기반 마련과 경관 개선을 위한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잔디 보석과 수목 정비, 목수국 200여 주 식재를 마쳤다. 이로써 섬 정원은 기존 생태와 조화를 이루며, 더욱 다채로운 경관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며 광양 유일의 섬으로 남은 배알도는 0.8ha, 해발 25m의 아담한 섬이다. 명칭은 광덕산의 천자를 배알하는 천자봉조혈 명당에서 유래됐다.

정상의 '해운정(海雲亭)'에 오르면 운치 있는

소나무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과 포물선을 그리는 망덕포구, 멀리 하동까지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한때는 접근이 어려웠던 배알도는 수변공원과 연결된 '해맞이다리', 망덕포구를 잇는 '별해는다리'가 차례로 개통되고 섬 정원으로 거듭나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섬 마당에서는 다채로운 버스킹이 열리고, 장엄한 일출과 석양, 반짝이는 경관조명 등 머물고 싶은 콘텐츠가 가득한 체류형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의 일환인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사업'은 윤봉주의 시 '별해는 밤'을 모티브로 경쟁력 있는 미디어아트를 구현,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시설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도서관에서 더위 피하고 보물도 찾고

곡성어린이도서관, 다음달까지 문화행사... 독서교실·체험활동 등

곡성군이 여름방학 기간인 이달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여름, 도서관에서 보물찾기'라는 주제로 곡성어린이도서관에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22일부터 내달까지 '도서관에서 보물찾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용자가 직접 해적이 되어, 지도를 보고 암호를 해석하며 도서관에 숨겨진 보물과 황금 책감피를 찾아볼 수 있다. 보물찾기에 성공한 이용자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

체험활동으로는 7월 31일과 8월 14일에 업사이클링 원데이클래스 '바다에서 찾은 보물, 씨글라

스'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인기도서 활용 여름방학 독서교실 '흔한남매와 세계 속 보물찾기!'가 어린이 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가족 대상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8월 12일과 19일에는 3D·5면형 실감형 동화체험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7월 27일, 8월 10일, 31일에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상영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15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전화(061-363-985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